'고강도' 방역체계 전환

익산시, 강도 높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지역확산 차단

공공시설 2주간 휴관, 각종 행사 · 종교모임 자제 당부

정헌율 익산시장이 점차 개방하기로 했던 공공시설을 2주간 다시 휴관하고 정부 방침보다 강력한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 유입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앞으로 2주일 간 각종 행사와 종교모임 자제,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방역수칙 준수 등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 시장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2주간 강도 높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 지역 내 집단감염 확산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행정의 최우선에 두는 방식으로 행정체계를 임시 전환할 계획이다. 당분간 모든 시정의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코로나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장을 중심으로 코로나 상시 방역대책반도 꾸린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를 한층 강화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체계를 전환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 주1회 실시했던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매일 실시하는 것으로 강화된다. 대상시설은 고위험시설을 포함해 모두 4,622곳이며 매일 800여명의 직원이 투입돼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시설로 분류된 고위험시설 5개 업종, 304곳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독려한 결과 현재까지 286곳이 설치된 상태이다. 이 업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앞으로 종교시설이나 학원 등에도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수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에서 지난 21일 추가로 지정한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업체, 뷔페식당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해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특히 방문판매홍보관으로 운영 중인 6곳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던 공공시설 67곳을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 동안 다시 휴관하고 시티투어와 야간 상설 공연 등 각종 행사와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예방조치를 강화했다. 익산시는 지역 어린이집 188곳을 대상으로 7월 4일까지 휴원 조치를 내렸으며 지난 21일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초·중·고등학교 시설에 대한 소독 활동과 방과 후 학생지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마스크 수급대책을 마련하는 등 2차 감염 확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익산=장양원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이 점차 개방하기로 했던 공공시설을 2주간 다시 휴관하고 정부 방침보다 강력한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했다.

'군산 메이드마켓' 문 열어

월명동 시간여행마을 내, 입주청년 수제창작 창업공간

군산시가 월명동에 청년창업가들의 수제창작 특화 창업공간인 '군산메이드마켓'이 문을 열었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메이드마켓'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강임준 군산시장, 김경구 군산시의회의장, 곽병선 군산대학교 총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소식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영상으로 그간 추진경과와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축하이벤트로 사업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어 군산시장 등 내빈들은 각 창업가들의 부스를 돌며 덕담을 나눴다. 행사장 밖에서는 군산메이드마켓 인근의 근대숙박체험장 '여미랑'의 정원과 연계해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창업가들의 아이템을 소개하는 전시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군산메이드마켓은 청년창업자들이 직접 기획·디자인해 제작한 수제창작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으로 월명동에 (월명로 490) 총소번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해 조성했다.

2층으로 구성된 군산메이드마켓은 총 7개의 개별공간과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체험실,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코워킹룸, 공용사무실을 갖췄다.

시는 공간조성과 더불어 지난 3월 군산메이드마켓에 입주할 창업가를 공개모집하여 7명의 청년 창업가를 선발했으며, 입주청년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운영방향을 정했다.

각 개별공간에는 인테리어 핫아이템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스트링아트 공방인 '낙타공방', 국내 최초 가죽제품에 타투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울잉크타투', 아이들 활동성을 고려한 맞춤형 패브릭공방 '오늘도, 꼼지락', 군산관광지를 소품에 입힌 군산관광상품 '테레사디자인', 뜨개애착인형을 만드는 뜨개공방 '살구공방', 직접 한국화를 그려 넣은 명품부채 '시서화 한국화스튜디오', 고품질의 영상과 상업사진을 대중화하는 '부엉이 스튜디오' 등 7명의 쟁쟁한 창업가들이 입주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입주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어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매장 공간 지원과 더불어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청년을 중심으로 관광상품 공동연구와 마을장터 운영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가 월명동에 청년창업가들의 수제창작 특화 창업공간인 '군산메이드마켓'이 문을 열었다.

지역 소식통

익산시, 공약사업 보고회

익산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6대 분야 85개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공약사업 추진부서장 및 사업 담당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개부서 85개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2020년 현재까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청년 전문담당 조직 신설, 청년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립, 청년 자산 형성 통장 지원, 청년(학생)학자금 이자지원사업 확대, 농민중심 농정시스템 장착, 100인 원탁회의 제도화, 어린이 영어도서관 건립 등 37건이 공약이행이 완료되거나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이다.

또한 KTX익산역 복합환승타운 조성, 시청신청사 신축, 4차 산업혁명 대비 마을전자상거래 육성 및 지원, 도시관리단 설립 등 41건은 계획한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주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확대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임기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65세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익산시는 22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르신의 건강보호와 코로나19에 의한 중증 폐렴등 질병예방을 위해 어르신 폐렴구균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모집한 결과 88개 병의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22일부터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6월 22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주소지에 관계없이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이 가능한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은 보건소 문의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청소년 코로나 블루 심리방역

심리검사 · 스트레스 관리 등

군산시가 청소년 심리 건강 지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코로나19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진호)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심리 건강을 증진시키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고자 '코로나19 청소년 심리 건강 지키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이 학교에 갈 수 없어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하고, 최근 등교 후에는 친구들과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등 평소와 다른 생활주기로 인해 스트레스와 무기력함으로 친구 및 가족 간 갈등이 생겨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로 인해 코로나 블루를 겪는 청소년에게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코로나19 청소년 심리 건강 지키기'를 운영해 개인상담, 심리검사 및 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방역을 위한 다양한 상담을 진행한다.

김진호 소장은 "이러한 전문적인 상담 및 다양한 맞춤형 연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이 새로운 일상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나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마스크 착용의무 강화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해온 마스크 착용의무를 강화하고 사회적거리두기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택시 등 운수업계 운수종사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정당한 승차거부를 할 수 있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여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문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운수업계와 협력하여 코로나19 지역확산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량 소독 등 방역활동 및 여객터미널내 발열체크 등 타지역 대중교통을 통한 확산 차단 활동도 더욱 강화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력

익산시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 지방 재정 신속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2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최종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율 60% 달성을 위해 지난 2월과 3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고 매주 간부회의를 통해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실시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신속집행을 추진해 왔다.

특히 상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이행 지침을 최대로 활용하여 투자 분야는 선금의 최대 80% 이상 집행하고 이월사업은 선금 및 기성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도 최대 선금 지급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과 각종 복리후생비 등의 수당은 당월에 집행 완료하고, 사무관리비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도 상반기 최대로 당겨 집행했다.

유희숙 부시장은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달성에 전 부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행정절차, 보상협의 지연, 주민민원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해 집행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집행해달라"고 전했다. /익산=장양원기자